단결! 투쟁! 9대 요구안 쟁취

단체교섭속보

[제 2 호]
2021년 9월 1일(수)

발행: KT노동조합 전화: 031-727-2800 팩스: 031-727-2849 http://www.kttu.or.kr/

“신사업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고용안정 확보방안”
<고용안정위원회>구성! 정년연장! 노동이사제 도입!

현장에서는 정년퇴직으로 인해 해마다 천 여명이 넘는 인력이 자연감소하고 각 사업본부 전출이 빈번하여 남은 조합원의 업무 가중이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도 회사는 단체교섭에서 현장 숙련자 보다 신사업 진출에 따른 기술변화 적응이 중요하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21년도 단체교섭 제도실무를 수 차례 진행하는 동안 회사는 영업, 시설 모두 인력이 부족한 현장의 상황은 외면한 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향후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고용불안을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고용안정위원회> 신설은 필수다. 현장의 업무과중 해소를 위해 ‘정년연장’, 노조 경영참여 방안인 ‘노동이사제’ 또한 기필코 쟁취해야 한다.

20년 이상 재직해도 G2, G3.
특별승진 확대로 고질적 승진적체 해소하라!

20년 이상 재직했어도 G2, G3. 천 여명의 조합원이 승진기회를 얻지 못해 임금 피해까지 이중 삼중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에 기여한 바가 없어서가 아니라 회사의 잦은 제도변경의 피해자일 뿐이다. 고질적인 승진적체를 외면하며 성과주의 기반 운운하는 회사의 독선과 오만함에 조합원의 상실감과 분노는 극에 달했다. 회사는 이제라도 독선으로 야기된 인사 참사를 막고, 진정한 동기 부여, 확실한 성장 동력 확보를 원한다면 특별승진 반드시 확대하라!